


보 도 자 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5.7.21.(월) / 총 3매(본문 2, 붙임 1)	
자료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전략연구본부 극지전략연구실- 김엄지 실장(051-797-4776, umjikim@kmi.re.kr)- 엄단비 전문연구원(051-797-4766, dbu@kmi.re.kr)	
배포 부서	• 성과홍보실(강자운 행정원 051-797-4396, 이제영 실장 051-797-4381)	
보도 일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한중일 북극연구기관, 지속가능한 북극 해운 위해 머리 맞대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디지털·지능화 시대의 친환경 북극 해운을 주제로
‘북태평양 북극연구기관 협의회(NPARC) 상하이 회의’ 개최, 2035 비전 공유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한중일 북극 연구기관 및 대학 협력 네트워크인 북태평양 북극연구기관 협의회(North Pacific Arctic Research Community, NPARC)를 지난 7월 15일(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했다.

이번 NPARC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상해국제문제연구원, 홋카이도 대학교가 공동 개최했으며, 한국 극지연구소, 중국 해양환경예보센터, 일본 국립극지연구소 등 한중일 북극 관련 학계, 연구소 16개 기관이 참석해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 NPARC: 한중일 북극 연구기관이 모여 정책, 과학, 기술, 경제 등 관련 분야 북극 정책 및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4년 한국의 제안으로 설립해 제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함

올해 NPARC에서는 참가자들이 ‘디지털·지능화 시대의 친환경 북극 해운 (Outlook 2035: Green Arctic Shipping in the Digital-Intelligent Era)’을 주제로 2035년을 전망하는 북극 해운 분야의 기술 혁신 및 친환경 전환에 대한 공동 비전을 논의했다.

개회식에서는 상해국제문제연구원 리카이성(Li KaiSheng) 부소장이 환영사를 통해 “NPARC를 통해 새로운 북극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축사를 통해 “NPARC는 한중일 북극 전문가 간 지속 가능한 협력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지속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극지연구소의 양후이젠(Yang Huigen) 교수는 ‘ICARP IV: 향후 10년 북극 연구계획과 거버넌스 시사점’을, 일본 홋카이도 대학교의 오텔카 나츠키코(Otsuka Natsuhiko) 교수는 ‘현재와 미래의 북극 해운’을 주제로 각각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세션 1(북극 해운을 위한 모니터링 기술, 디지털화 및 스마트 운항 지원) ▲세션 2(친환경 북극 해운 기술과 환경 보호) ▲세션 3(글로벌 경제 및 산업변화가 북극 해운에 미치는 영향) ▲세션 4(한중일의 북극 해운 정책 협력과 역할)로 구성됐다.

세션 1에서는 위성 기반 모니터링과 지능형 SAR 기술, AI 해빙 예측 등을 활용한 스마트 북극항로 운영 기술과 아시아 지역 내 데이터 공유 및 상호운용성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세션 2는 친환경 연료(LNG·메탄올·수소·전기) 전환, 선박 및 장비의 저탄소화·지능화, 블랙카본 저감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세션 3에서는 북극 북동항로(NEP)의 상업적 운항 시나리오와 경제성 평가, Power-to-X 산업 전략, 기후변화가 무역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세션 4는 한중일 북극 해운 정책 비교, 지속가능한 항로 이용을 위한 제도 협력, 공동 워킹그룹 구성 제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기후변화 대응, 기술 전환,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과제에 직면한 지금, 친환경 해운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제적 책무와 지속 가능한 해양 거버넌스를 위한 공동 실천의 핵심 과제이다”고 말하며 “한중일 3국 모두 주요 해운 국가이자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서, 북극항로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동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상기 보도자료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취재지원 필요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엄단비 전문연구원(051-797-4766, dbu@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11회 NPARC 세미나 단체사진



<붙임2> NPARC 회차별 주제 및 개최지

- (제1회) '14년 / 한국 제주 / 북극 연구 협력 기반 구축 - NPARC 창립 회의
- (제2회) '15년 / 중국 상하이 / 북극 정책 전략 연구
- (제3회) '16년/ 일본 홋카이도 / 지속가능한 북극 이용
- (제4회) '17년 / 한국 부산 / NPARC 협력 강화 방안
- (제5회) '18년 / 중국 상하이 / 북극 경제협력과 외교관계 / 제3차 한·중·일 북극 고위급 대화와 연계 개최
- (제6회) '19년 / 일본 홋카이도 / 아시아-북극 지역 간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 (제7회) '20년 / 한국 온라인 / 북극 거버넌스와 옵서버 역할
 - * COVID-19로 온라인 개최
- (제8회) '21년 / 중국 상하이, 온라인 / 러시아 북극 개발과 동아시아 협력
 - * COVID-19로 하이브리드 개최
- (제9회) '23년 / 일본 홋카이도 / 북극 연구의 현재와 미래
- (제10회) '24년 / 한국 부산 / 3국 북극 연구 기여와 미래 협력
- (제11회) '25년 / 중국 상하이 / 디지털·지능화 시대의 친환경 북극 해운